

# 미얀마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

정성훈(Sung-Hoon, Jung)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국제통상학전공 부교수

권오윤(O-Yoon, Kwon)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 목 차

I. 연구의 배경	IV. 결론
II. 미얀마 통상환경의 거시적 평가	참고문헌
III.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및 무역	ABSTRACT

## 국문초록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 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주제어** : 미얀마, 개혁개방, 통상환경, 투자환경, 한국기업

## I. 연구의 배경

### 1. 연구의 목적

미얀마는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의 부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이 정체되면서 경제적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6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중국과 인도에 접경한 요충지이자, 인도양과 동아시아의 전략적 천연수로인 말라카 해협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62년 네워장군의 “버마식 사회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2011년까지 미얀마의 경제는 아무런 변화와 성장도 없었으며, 이기간 동안 주변국인 태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 사회적 모든 면에서 확연한 격차를 보여 왔다. 다만 2010년 들어 미얀마 역사상 두 번째로 국민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 신정부 출범, 민영화, 경제특구지역 신설 등으로 심심치 않은 경제 개혁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EU 등 서방 세계에서는 군복만 벗은 것이며 여전히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 반면에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지리적 주변국들은 미얀마 경제 개혁과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최근의 정치경제적 개혁과 더불어 그 동안 낙후 되어온 미얀마의 거시적 경제 및 사회체계 전반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게 어떠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어떠한 진출 전략이 유리한가를 고찰하는데 주요한 의의를 둔다. 연구범위는 현재 미얀마 거시적 경제, 정치적 현황 및 변화 추이,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별 구조 변화 분석, 주요국의 미얀마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기회 요인, 미얀마 경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직접 투자 분석 및 진출 전략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정책연구 일간지, 미얀마 국가 통계청 자료, 그리고 미얀마 경제 정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료 등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국내외 언론 보도 자료 및 연구 주제와 연관된 모든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고 최신의 현지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 종료시점인 2011년 10월까지 업데이트하였다.

### 2. 선행연구의 배경

기존의 미얀마 경제 관련 논문들은 주로 미얀마 국경 무역에 대한 실증 분석이나 미얀마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국경 무역에 역할에 관한 연구,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다룬 연구가 주요한 주제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미얀마와 중국 간의 상호관계 관련 손익 분석, 중국이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얀마-아세안에 관한 경제적 효과,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 분석, 산업별 분석, 품목별 분석 등이 그러하다. 일반적 정치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역시 태국-미얀마 관계의 변화 분석, 인도-미얀마, 중국-미얀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인접 지역국가들과의 상호관계가 주요한 연구 관심사이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 군부의 독재 체제로 인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및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눈에 띈다.

〈표 1〉 미얀마 정치경제 관련 선행 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연구 결과
윤동진(1999)	미얀마 대우그룹 성장과정	대우그룹의 미얀마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2007)	태국-미얀마 철도화물 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태국-미얀마 철도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요에 대해 예측하였다.
이동윤 장준영(2002)	태국-미얀마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전후한 태국-미얀마의 관계의 변화는 탈냉전 이후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외교정책의 변화, 군사 변화, 정치.경제 현안 등이 상호 역동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안철형(1991)	버마와 중국: 우호와중립	버마와 중국간의 관계는 버마가 중립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중립주의가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는 한 버마의 내부 사정 상관없이 중국간의 우호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장준영(2007)	탈냉전 이후 미얀마-중국 관계의 지속과 변화	공산당. 마약밀매 등 공동 해결, 지역 환경 구축하는 등. 중국은 미얀마 군부 체계 후원하면서 체계 변동에 대비하는 방향을 흘러가고 있음.
Toshihiro KUDO* Fumiharu MIENO** (2007)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Myanmar's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n Open Economy	미얀마 경제 성장은 무역과는 관계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 내린 바가 있으며, 분석 기간 동안 무역보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얀마 경제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Thandar Khine*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Myanmar and ASEAN	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해 아시안 회원국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 유치 전략을 펼쳐야 된다.

Toshihiro Kudo (2007)	Border Industry in Myanmar turning the Periphery into the Center of Growth	국경에서 벌어지는 불공식적인 교역행태는 미얀마의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경지역 국민들은 불법, 부정 교역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부정 교역이 국경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inston Set Aung (2009)	The role of informal Cross-border Trade in Myanmar	
Nay Myo Aung(2008)	Comparative Advantage of Myanmar's Export Items in China Market:	중국과의 무역이 미얀마 경제에 필요하지만 불균형 교역으로 중국이 미얀마에 상대적 이득을 본다. 특히 산림자원을 많이 수출하여 향후 미얀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Masahiro Hori and Yu Ching Wong (2008)	Efficiency Costs of Myanmar's Multiple Exchange Rate Regime	여기서 제시한 모델 분석 결과는 미얀마 환율 균형 값은 1 \$에 400-500 짜트이며 이 환율을 적용할 경우 보다 무역 개방도가 20% 넘게 증가할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많은 관련 연구들이 미얀마와 주변국과의 행태적 교역관계나 통신, 환율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최근 미얀마 경제 개혁을 이슈화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미얀마의 경제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기업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의 부재 속에 본 연구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수행되어 제안되고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 II. 미얀마 통상환경의 거시적 평가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 영국에서 완전 독립되었으며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2010년까지 군사 독재 아래 머물러 왔다. 미국, EU 등은 대 미얀마 수출 제한과 군부정권 고위관리의 자산 동결 강화 및 미얀마 인사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를 발효시켰다. 이에 미얀마는 2003년 8월에 민주화 7단계 로드맵(Myanmar's Road Map to Democracy)을 발표하고 2007년 발생한 샤프란 혁명<sup>1)</sup>의 계기로 군부가 서둘러 헌법 초안을 만들어 2008년 5월에 국민 투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1) Saffron Revolution - 군부가 예고 없이 대폭 인상된 천연가스, 경유, 휘발유 가격 조치에 일반 주민부터 승려들까지 참여하여 비폭력적으로 거리에서 행진을 벌인 시위를 일컫은 말로 승려들의 연황색 옷의 상징으로 샤프란이라고 불린다. 위키 백과 참조.

경제제재 강화와 이에 따른 외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10월 국유자산의 민영화 추진 발표 및 2010년 1월 외국인 투자 관련법인 경제특구법(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을 실시하였다. 2011년 1월 말에 6단계인 의회<sup>2)</sup>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30일에 미얀마의 신도시인 네피도에서 신정부 출범을 선포함으로써 2003년 발표된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의 진행이 완성되었다.

## 1. 미얀마 거시경제 추이

### 1) 인플레이션 추이

미얀마는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의 비효율적 정책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1960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거시적 경제가 안정적이었으나 사회주의의 정책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말았다. 막대한 비용과 낭비를 초래한 자원의 분배 불균형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이어 부적합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가격, 예산 그리고 지출, 환율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의 폭을 더욱 가속화 시켜왔다. 미얀마의 공공 지출들은 실제 생산에 반영하지 않은 분야에 오히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세안 국가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인플레이션 – Selected Asian Countries, 2001–2011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싱가포르	1	-0.4	0.5	1.7	0.4	1.0	2.1	6.5	0.6	2.8	3.2
말레이시아	1.4	1.8	1.0	1.5	3.0	3.6	2.0	5.4	0.6	1.7	3.0
태국	1.6	0.7	1.8	2.8	4.5	4.7	2.2	5.4	-0.9	3.2	3.5
캄보디아	-0.6	3.2	1.2	3.9	6.3	6.1	7.7	25.0	-0.7	4.0	5.5
베트남	-0.4	3.8	3.2	7.8	8.3	7.4	8.3	23.1	6.9	9.2	13.3
필리핀	6.8	3.0	3.5	6.0	7.6	6.2	2.8	9.3	3.2	3.8	4.9
인도네시아	11.5	11.9	6.6	6.2	10.5	13.1	6.3	9.8	4.8	5.1	6.3
라오스	7.8	10.6	15.5	10.5	7.2	6.8	4.5	7.6	0.0	6.0	6.5
미얀마	21.1	57.1	36.6	4.5	9.4	26.3	32.9	22.5	8.2	7.3	8.0

자료: World Bank: Data & EU country report : ADB

미얀마의 11년간의 평균 인플레이션 23%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4배에 달한 인플레이션

2) 의회는 1988년 9월에 군사 쿠데타로 해산되었던 것이다. 1990년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하였으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NLD)이 압승하였으나 당시 SLORC는 총선 결과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의회 구성이 미루어졌다.

율을 기록하고 있다. 라오스는 2005년 전까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미얀마는 라오스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지만 미얀마와 여전히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많은 통화량 공급, 정부의 지출, 기타 비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었다. 2007년 기존 가격보다 400%나 오른 천연가스, 100% 인상된 휘발유와 경유도 66%<sup>3)</sup>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오름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상승에 이어 2008년 5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영향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엔 경유와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떨어졌다. 다만 2010년엔 8.5%로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커지며 미얀마 정부 재정적 해소를 위한 지속적 통화 공급과 국내신용장의 개설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2011-12 회계연도에는 두 자리 숫자인 12.4%로 오름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 등 인플레이션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 2) 환율 추이

미얀마 환율 시장은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로 크게 은행에서의 공식적 환율과 시중에서의 비공식 환율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 거래는 비공식 환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미얀마 환율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에서는 복수환율제도는 국내 외국 통화의 수요를 통제시키는 기능을 하여 환율의 통합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촉진시켜 미얀마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여할 것이며 통합하게 될 때 환율의 예측치는 1\$=400-500짜트(미얀마 화폐 단위)로 예측한 바가 있다.<sup>4)</sup> 미얀마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환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미얀마 공식/비공식 환율 추이 (2004~2010)

단위 - 짜트/1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arallel EX	970	1,095	1,280	1,290	1,185	1,055	970
Official EX	6	6	6	6	5	6	6

자료: CIA world fact book

미얀마의 공식적 환율은 1977년에 공식적으로 1달러 6짜트로 고정하였으며 미얀마 주변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인상적으로 이루어진 지난 30년간 미얀마의 환율은 급변한

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for Myanmar, 2008, p.4, www.eiu.com

4) Masahiro Hori and Yu Ching Wong, "IMF Working Paper", "Efficiency cost of Myanmar's Multiple exchange rate regime", 2008, p.3.

국내외적 물가와 비용은 무시한 채 미얀마 경제에 아무런 의미도 반영도 못하였다. 민간부분은 무역과 경제 활동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공식적 환율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1993년 군부 정부가 미국 달러 대체로 미얀마 외환증서인 Foreign Exchange Currency (FEC) 제도 도입하였다. 다만 미국 달러는 비공식 환율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고액을 지불할 때만 미얀마 외환증서(FEC)는 이용하고 있다. 당시 미얀마 전체 환율 거래의 70%가 비공식 환율인 시중 환율로 대체하였다.

비공식 평균 환율은 1988년 1달러=42짜트에서 2005년 1,075짜트로 25배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났으며 2007년에 1,296짜트로 30배 이상 하락하였으나 점점 회복세를 보여 2011년 7월 현재 시중 환율은 600~800 짜트로 안정되어 이는 2011년에 출범된 신정부의 경제 개혁,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한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미얀마의 해외 송금, 결제 그리고 (수출+수입/실질 GDP)로 예측한 무역 개방화 등과 같은 지표를 계산하였을 때, 공식 환율로 계산하였을 때의 1% 미만보다 20~23%로 증가하였다는 등 모든 국제 거래는 복수환율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실제 GDP에 과소평가될 우려가 되고 있으며 2006~07 회계연도에 이중 환율로 인하여 전체 효율성 손해는 GDP의 14~17%에 달한다.

### 3) 주요 경제지표 추이

미얀마 경제성과에 대해 거시적 수준에서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구매력 기준, 수출입, 경상수지로 7개의 지표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얀마는 1992년 활발한 외국인 투자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교역이 활발하던 ASEAN 국가의 금융위기 여파, 2003년에 민간 은행 위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침체, 국제 인권단체들의 미얀마 제품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아왔다. 2005년 상대적으로 두 자릿수의 13.6% 높은 성장률은 보였으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GDP 성장률은 1% 내외라고 일축한 바가 있다.

미얀마 관련 연구에 따르면 1인당 GDP 대비 구매력 평가(PPP)는 미얀마는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1년 7월 발표된 세계은행 분류 기준으로 미얀마는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이 아직 저소득 국가(Low income)인 반면 베트남 같은 경우 태국과 같은 중저소득 국가(Lower Middle income)로 이동하였다.

〈표 4〉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5-2011)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십억달러	11.1	11.9	16.3	22.7	27.5	28.9	30.4
실질 GDP 성장률	%	13.6	3.4	3.4	1.1	1.8	3.1	4.3
1인당 GDP (PPP)	달러	2,365	2,505	2,641	2,704	2,765	2,857	2,984
소비자물가상승률	%	14.3	28.4	28.6	20.4	6.7	9.9	17.2
FOB 상품 수출	십억달러	3.7	4.6	6.1	6.7	6.9	7.8	8.1
FOB 상품 수입	십억달러	1.7	2.3	2.9	3.4	3.9	4.6	5.1
경상수지	백만달러	576	760	1,285	1,281	788	607	320
환율	(짜트/\$)	1,095	1,280	1,290	1,185	1,055	970	1000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782	1,248	2,312	3,412	3,561	3,762	3,912

자료: EIU country report, CIA world fact book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05~6 회계연도에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급등한 휘발유 가격과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임금 인상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이르렀던 것이다.

<표 4>에서 발표된 GDP 성장률과 다르게 2005년에서 2007년까지 13.6% 13.1% 11.9%로 두 자리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조 등에 기인하였다는 의견이 있다<sup>5)</sup>. 이 같이 각종 통계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미얀마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조차 그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과 2009년에 경제성장률이 1.1%와 1.9%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당시의 상황은 태풍 ‘나르기스(Nagris)’로 주요 농업 지역인 ‘야아위디’와 ‘양곤’ 지역에 입은 피해, 그리고 1차 상품 가격 불안정과 경제 침체된 주변국들의 영향, 그리고 미얀마 화폐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해외 미얀마 근로자들의 부실해진 송금 등으로 수출과 소비가 줄어들었고 저임금과 물가 및 환율 불안정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국내 투자도 한정된 자본으로 인해 그 자리에 멈추고 있었다. 물론 에너지, 광업 및 석유 같은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으나 다른 부문에서는 높은 정치적 위험, 열악한 투자 환경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는 선진국들과의 관계 부진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측면이 있어 2009년 이후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이 농업, 광업, 제조업 그리고 물류 및 통신 부분의 투자 실적의 결과로 특히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는 개발 사업으로 지속적

5) 정재원, 김종상, Kiep-Kotra, "미얀마 주요 산업", 2009, p.22.

인 성장을 하였다. 2010년에 ‘네피도’ 신도시 및 ‘만달레’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주변국들의 경제 회복으로 인해 미얀마로부터 식품과 천연가스의 수입이 늘어난 것도 한 몫 하였다.

#### 4) 경제자유도 평가

또한 미얀마의 실제 경제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서 경제자유도를 꼽을 수 있는데 미얀마는 아시아 지역 41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인 40위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경제 자유도는 총 10개의 측정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 무역, 세금 부담,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억제, 투자활동 자유, 금융 투명성, 재산권 보호 수준 정도, 부패 지수 그리고 노동 시장 자유이다. 미얀마의 경제 자유도는 38점으로 완전 통제로 간주되며 이는 정부 간섭으로 인해 침체되던 투자 활동, 높은 부패 지수, 미흡한 재산권 보호 수준에 기인하며 특히, 금융 기업들을 민영화 시켰음에 불구하고 금융 기업의 투명성 및 자유도는 여전히 낮아 아시아 41개국 중에 가장 낮은 경제 자유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5〉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IEF, 2011) 국가별 분야별 비교

Economic Freedom								
Countries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기업활동 자유도	20	40	62	59	99	70	70	55
무역 자유도	72	70	69	68	90	79	76	74
세금 부담	82	91	76	80	93	85	75	83
정부 지출	98	94	75	90	90	79	91	89
인플레이션 억제	57	78	79	80	87	81	71	74
투자 활동 자유도	0	60	15	25	90	45	40	35
금융기관 투명성 및 개방도	10	50	30	20	90	50	70	40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5	30	15	20	90	50	45	30
부패 지수	14	20	27	20	82	45	34	28
노동 시장 자유	20	46	68	50	86	79	76	52
점수	38	58	52	52	90	67	65	60
순위 (아시아 41개국)	40	17	30	31	2	9	10	22

평가기준: 완전자유(80~100), 대부분자유(70~79), 보통자유(60~69), 부분통제(50~59), 완전통제(0~49)

자료: Heritag.org

#### 5) 산업별 비중 추이

1962년 군부가 집권하면서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가 국유화되었으며 특히 미얀마 산

업에서 에너지 등 중공업 분야는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다가 최근 신정부 출범으로 국영기업의 일부를 민영화 시켰다. 다만 정부 주도의 민영화는 2000년 들어 이미 진행되기 시작하여 2006년 기준 정부 산하 123개 기업이 최초로 민영화되었고, 현재까지 민영화된 추세를 살펴보면 미얀마 제 2공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2011년까지 공기업 및 정부자산의 90%를 민간으로 매각하고 12개의 수입금지 품목<sup>6)</sup> 등 10%는 정부가 보유할 계획이다.

<표 6>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산업별 비중 추이 (2009 기준)

국가 (단위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캄보디아	37.9	32.4	32.5	23.0	26.4	22.4	39.1	41.2	45.1
라오스	48.5	36.7	32.8	19.1	23.5	25.2	32.4	39.8	42.0
미얀마	57.2	46.7	38.2	9.7	17.5	24.4	33.1	35.8	37.4
베트남	24.5	21.0	20.9	36.7	41.0	40.2	38.7	38.0	38.8
태국	9.0	10.3	11.6	42.0	44.0	43.3	49.0	45.8	45.1
인도네시아	15.6	13.1	15.3	45.9	46.5	47.6	38.5	40.3	37.1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표 6>의 ADB 자료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미얀마는 1차 산업인 농업에 크게 의존하였다. 2000년 GDP대비 산업별 차지하는 비중에서 총 GDP의 57%를 차지하던 농업은 2009년 38%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에서 24%와 33%에서 37%로 증가하였다. 2차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비해 산업화가 많이 늦어진 편이며 여전히 산업화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2차 산업 비중이 40%~50%를 차지한다<sup>7)</sup>.

위에 언급하였지만 2000년 들어 많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 되어 제 2차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도 신정부 출범 이후 국영기업이던 미얀마 철도 민영화 추진<sup>8)</sup>, 태국-미얀마 인프라 건설 계약 체결<sup>9)</sup>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발전소 등 산업화에

6) 12개 품목 : 티크, 석유, 천연가스, 진주 및 옥 등 보석류, 정부 소유의 수산물, 통신산업, 철로 및 항공사업, 은행 및 보험, 방송, 금속산업

7) U Soe Thain, "National Workshop on Enhancing Economic Policy for Futur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2011.10. p.7.

8) 미얀마 철도 공사에서 미얀마 철도 공기업 입찰 모집 중이며 하나의 민간 기업으로만 독점하도록 민영화 시킬 것으로 추정됨. (자료: Khitlu)

9) 2010년 11월 2일 네피도에서 Italian-Thailand Development(ITT)사의 Premchai Karnasuta회장은 미얀마 항만청장 U Thein Htay과 미얀마 동부 해안지역에 약 86억 달러에 달한 광범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Framework agreement 계약서를 체결했다.

필수적인 물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6) 조세지출 비중 추이

또한 미얀마 정부의 조세 지출 비중을 보면 미얀마 정부는 1) 국방비, 2) 교통 및 건설 지출, 3) 교육, 건강 및 축/수산업 포함한 농업에 대한 지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아직 제조업에 대한 지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는 국제 사회의 지원 부족 그리고 국내 민간 부분의 초기 발전 단계 등 경제 발전에 있어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회원 10개국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낮은 조세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 경제 발전에 정부의 미흡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0)</sup>. 뿐만 아니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할 만큼 걷어 들이는 조세 비율도 상당히 낮아 ADB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싱가포르 22.8%, 말레이시아 20.5%, 인도네시아 17.7%, 태국 17.5, 필리핀 15.0%인 반면 미얀마는 3.7%에 머물고 있었다. 게다가 조세 비율 중에서도 미얀마 개인 소득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수출 소득세는 기존 10% (2011년 현재 7%), 그리고 조세 부담 비율 중에 Tax on goods and services (소비세(물품 및 서비스 구매 부가세))에 대한 조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재와 생산재 구매에 대한 부가세는 동일하다. 소비재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부가세의 지불로 해결이 되지만 생산재 같은 경우 이중적 부가세를 지불해야함으로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비재만을 수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산재 수입자들에게 소비세 면제 등과 같은 각종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sup>11)</sup> 등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정부는 조세에 대한 공정성, 평등, 효율성 등 정책적 개혁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 7) 외국인 투자 추이

국내 자본이 미흡한 미얀마 산업 구조에 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 영향이 적지 않은바 미얀마 경제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얀마는 문독률이 90%인 양질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티크, 니켈, 구리, 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농업 가능한 넓은 토지, 해안선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러한 장점들은 외국인 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1989년대부터 유입

10) U Soe Theing, *ibid.*, 2011, p.35.

11) *op cit.*, 2011, pp.33-36.

되기 시작하였는데 역사적으로 기록하였던 최대치는 1996년 28억 달러였으나 2001년에 190만 달러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10년 199억 달러가 대거 유입되면서 한 해로 유입된 투자치고는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1년은 상반기까지 31개국이 투자 중이며 미얀마 유치된 총 외국인 직접 투자의 누적 승인액은 306.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얀마 역사상 최대의 5위권 투자 국가별로 살펴보면 1위 중국은 96억 달러, 태국은 95억 달러로 2위, 홍콩은 62억 달러, 한국은 29억 달러, 영국 26억으로 각각 3, 4, 5위를 기록하였다. <표 7>에서 미얀마 대 외국인 투자 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 국가들은 총 190건수 127억 달러로 그 중에 태국이 26%, 총 148 건수의 중국과 홍콩이 각각 26%, 1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얀마 대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에 아시안 국가들의 차지하는 비중(35%)보다 두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EU와 다른 나라들의 투자비중은 전체의 9%에 불과하다.

<표 7> 국가별 미얀마 총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2011년 7월31일 기준) (단위: million\$,%)

순위	국가별	건수	투자액	비중(%)
1	China	32	9,603.168	26.6
2	Thailand	61	9,568.093	26.5
3	Hong Kong	38	6,308.495	17.4
4	Republic of Korea	47	2,933.017	8.1
5	U.K*	51	2,659.954	7.3
6	Singapore	74	1,818.613	5.0
7	Malaysia	38	975.097	2.7
8	France	2	469.000	1.3
9	U.S.A	15	243.565	0.6
10	Indonesia	12	241.497	0.6
11	The Netherlands	5	238.835	0.6
12	Japan	22	211.902	0.5
13	India	5	189.000	0.5
14	Philippines	2	146.667	0.4
15	Russia Federation	2	94.000	0.2
16	Australia	14	82.080	0.2
17	Austria	2	72.500	0.2
18	Others+14 =31	32	216	0.6
	Total	454	36,071.888	100

자료: 미얀마 통계청

그리고 최근 5년간 국가별 투자 동향을 보면 중국은 총 투자액 94억 달러 중 2010년에만

8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홍콩도 2010년 한 해에만 57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전체 투자액인 58억 달러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급격히 줄어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투자 실적은 없었으며 전체 투자액은 26억 달러뿐이다. 한 편 한국도 최근 5년간의 투자액 중 2010년에만 과거 총 투자액의 92% 이상인 2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 2. 미얀마 무역 동향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통해 군부가 정치, 경제를 자급자족 방식으로 이끌어 왔다. 따라서 미얀마 경제 기반인 농업만을 통한 외화 유입은 무리수였으며 이로 인해 외화 부족으로 경제 개발 원조(ODA) 받게 되었지만 그것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는 시급한 외화 유입을 위하여 태국으로부터 산림 및 축산에 대한 영업권을 주기 시작하였고 국제 무역에 관련하여 개방적 시장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무역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989회계연도 등록된 수출입 업체들이 100개로 부터 1997년에 900 개로 급증하였는데 1985-2003 사이에 6배달한 무역 성장률을 보였고 같은 기간 동안 GDP는 1.8배 성장하였으며 이 때 미얀마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일본과 한국 순위이다. 다만 2003년까지 GDP 대비 무역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는데 한편으로 이는 실제 무역 거래 이용되는 실제 환율이 아닌 공식 환율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평가절하 된 것이었으며 이 지표로 미얀마 경제 개방 정도를 측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기존 미얀마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 대외 개방도 정도가 1995년보다 오히려 계속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한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수요와 해외 공급을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수이며 GDP 대비 수출입 비중에 따라 개방도 정도 달라지는데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이 고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개방도가 낮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저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12)</sup>

한편으로 미얀마 역사상 무역 흑자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이 수입 억제 효과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출 대금이 있어야 수입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2003년 전까지 미국과 EU 시장의 급등한 수요로 인해 봉제업과 천연가스 수출로 미얀마 무역이 성장하였는데 이후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해 미국의 미얀마 제품수입이 중단되었다.

12) 김완중(동아대), "동남아경제의 다양성과 수렴: 교역구조를 중심으로", p.14.

2003년 전까지 미얀마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식품 그리고 철강, 시멘트이다. 주요 수출품은 1997년대부터 봉제류 수출로 시작하였으며 2000년 대 들어와서 태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2003년대부터 서방 세계의 제재로 2003년 4월 기준으로 의류 실적이 4억 5000만 달러였는데 2005 회계연도에 2억 1600억 달러 감소하는 등 의류의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태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은 미얀마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하면서 천연 가스는 미얀마 무역의 빼놓을 수 없는 수출품으로 그 뒤에 콩, 티크, 견목으로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며 미얀마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원집약 업종은 수출지향적인 패턴 보이고 있다. 2008년 미얀마 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에 의한 타격을 받았으나 그 해는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유는 국제원자재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다만 한편으로 미얀마 경제는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다. 특히 아세안 금융위기로 태국 비롯하여 주변국들의 경제 불황기에서도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금융 위기를 덜 받았던 미얀마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2011년 회계연도에도 여전히 농수산물, 천연 가스, 티크 등이 미얀마 수출 주요 품목으로 이어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얀마의 주요 수출국은 1위 중국, 2위 태국이며 3위 홍콩이 뒤따르고 있다. 수출 국가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지리적 거리 가까운 나라 즉 태국, 인도, 중국으로 주변국들과의 교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국과 교역이 많은데 해상 무역보다 국경 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많으며 천연가스 경우 미얀마-태국 간 천연가스 수출 30년 간 계약으로 하루 10억 입방피트 수출하며 이는 약 7억 입방피트로 국제가격 수준이 된다. 태국은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약 50%, 전체 수입의 22%미얀마 최대의 교역국이며 경제 발전에 의해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태국의 화력발전 연료로서 총 전력의 약 20% 미얀마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광, 제조업 및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약 74억 달러를 미얀마 투자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리고 2003년까지 -1.5억 달러 경상 수지 적자였다가 2006년 10.3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는 태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흑자의 확대 때문이었다.

수입 품목은 주로 살펴보면 비전기기계류, 정유, 금속 및 제조품 그리고 전기기계류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 미얀마의 산업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 기술 집약업종과 중화학업종은 수입 지향적 패턴을 보인다.<sup>13)</sup>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그리고 신정부 출범으로 경제 특구법이 발표되었으며 이 후 산업화가 활발해지면서 비전

13) 정제원, 전계서, 2010, p.17.

기 기계류의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모터사이클, 자동차부품, 철강제의 구조물 등으로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8>에서 미얀마 주요 수입 국가들의 현황은 볼 수 있다.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등이며 이들의 8개국의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얀마 수입국들은 주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무역은 일반무역과 국경무역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국경 무역은 일반 무역보다 수입허가와 통관이 용이하다. 2009년 기준으로 중국과의 국경 무역이 4억 달러, 태국과 1억5000만 달러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보다 압도적으로 교역량이 많다. 다만 2011년 8월에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 교역량은 1억 6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sup>14)</sup> 국경무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홍콩의 경우 미얀마의 주요 수출 국가이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의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 Ⅲ.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및 무역

#### 1. 미얀마 대 한국 투자 및 무역 동향

미얀마 중앙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얀마 외국인 투자 유치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한국의 투자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현재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미얀마 총 외국인 직접 투자 건수는 47건, 29억 3천만 달러이며 2010년 한 해에만 10건수로 26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미얀마 주요 투자국 중 4위, 총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에 8%를 차지하여 2008년<sup>15)</sup>보다 8배나 늘어났다.

한국 기업들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고 기준으로 2011년에 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뒤에 제조업은 5천만 달러, 운송업은 4천7백만 달러 등으로 뒤를 이뤘는데 한국 대 미얀마 투자 동향은 제조업, 에너지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이 미얀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그치지만 이 중 대부분은 한국 봉제 및 제화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40여 개 이상의 봉제공장이 입주해 있다. 한국 봉제 공장들의 미얀마 진출 동기는 1) 저렴한 노동력

14) 미얀마 에야위디 신문, 2011/08/03.

15) 정제원, "미얀마의 경제 개혁과 한국. 미얀마 경제교류", 2011, p. 109.

의 이용 2) 노조가 없는 것을 꼽았다<sup>16)</sup>

다만 최근 들어 미얀마 단순 노동이 아닌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법에 제 11장 노동 관련 사항으로 고용계약서부터 최소 임금, 상여금, 휴직, 초과근무수당 등 포함시켰으며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에는 내국인을 고용해야 함을 정하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거의 반세기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등 미얀마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sup>17)</sup> 국제노동조합(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투명성을 더 높여 향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제조업 및 무역업 분야에 많으며 이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에 대한 투자와 같이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대부분의 의류 관련된 봉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한국기업의 대 미얀마 제조업 투자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오래 기간 동안 진행 해왔다는 것이다. 광업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비중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수출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광업에 대한 투자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한 해에만 광업 분야에 3억 달러에 달한 투자하여 전체 광업 투자에 49% 가까이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제조업은 깊은 역사와 함께 그 동안 쌓아온 관련 분야에 대한 노하우 및 축적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간의 교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 미얀마 대 한국 수출입 현황(2011년5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Myanmar's Trade with Republic of Kore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	232.1	143.4	184	162	120	121.3	291.9	243.8	406.2	481	218.4
수출	50.7	56.3	29.3	30	56.5	96.4	80.7	116.3	78.4	159.7	75.1
무역수지	-181.3	-87.2	-154.7	-131.8	-63.7	-24.8	-211.3	-127.6	-327.8	-321.3	-143.3

자료: Trademap database

1975년 10월 미얀마-한국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사실상 1965년부터 양국간 교역이

16) 장준영,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2010, p.113.

17) 문화일보, "미얀마 50년 만에 노조, 파업 허용", 2011/10/7.

이루어졌는데 1973년까지 미얀마의 대 한국 수출실적은 없었다. 1992년 전까지 26년 동안 평균 수출 금액은 연간 6백만 달러 수준이었고 1993년부터 1500만 달러 돌파하여 현재 2010년 기준으로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연 평균 5000만 달러이다. 한편으로 미얀마 수출과 달리 수입 면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부실한 수입 실적을 보였으나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연 평균 2900만 달러 달한 수입을 하였으며 1996년부터 1억 3천만 달러 돌파하여 2010년 기준으로 4억8천만 달러 가까이 수입하고 있으므로 연평균 2억2천만 달러에 달한다.

과거 수출입 품목도 오늘날의 주요 품목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1980년대의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및 운반기계, 화학제품, 철강 제품, 전기, 전자 제품 등이다. 미얀마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2000-2009년간 평균 수입액인 11억6500만 달러이며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은 2억1900만 달러임으로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한국보다 5배에 달하는 수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미얀마 주요 수입 국가들은 지리적 가깝다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 같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 2배 가까이 미얀마로 수출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미얀마는 한국으로부터 주로 철강,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가축, 전자기기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철강 관련 제품들은 2006년 6백8만 달러에서 2010년 1억 달러 수입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 수출입 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선재봉강 및 철근, 레일 및 철 구조물 등이 2006년 전체 수입의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 0.7%에서 2009년 기준으로 19%, 14%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최근 수입은 한류의 영향으로 일반 소비재의 선호도가 급증하였다. 미얀마 수입 품목 중에서 중국은 모터사이클, 한국은 철강, 일본은 화물자동차가 1위에 꼽히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건설 중장비를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서 각각 4천만 달러, 3천700만 달러, 2천900만 달러로 수입하고 있었다. 이는 미얀마 수도 이전 배경과 미얀마 물류 및 인프라 구축으로 상당한 건설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특구법 발표 이후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 빠르게 산업화될 전망이다. 자본재, 중간재 수요가 늘고 점차 농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제조업 분야에 투자도 늘어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미얀마의 수입 상위의 20개 품목 중 대부분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수입되고 특히 중국과 태국은 주로 국경 무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싱가포르는 해상무역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산 제품은 철강, 건설 중장비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과의 무역도 지리적으로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하므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의 대 한국 수출 품목은 HS 62 코드 품목인 의류 같은 섬유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미얀마 봉제 공장 포함한 진출 한국 기업들의 수출량의 증가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농업 중심 국가인 미얀마의 농산물은 수출을 많이 하는 편으로 특히 벼와 콩(수출가능작물)을 들 수 있다. 콩의 경우, 특히 수확 후 건조와 선별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농업 및 농가공업 분야에서 기존의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증산된 물량을 수출하는 방식, 미개간지를 개간하여 조성된 농지에서 생산된 물량을 수출하는 방식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얀마 수출은 자원 및 노동집약적인 패턴을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주변국들에 비해 농업을 비롯하여 천연자원,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가능성 활용하는 비교 우위에 있으며 한국은 자본, 기술 집약 업종과 중화학 업종이 비교 우위에 있음으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sup>18)</sup>

## 2. 한국의 미얀마 시장 투자 및 진출 전략

한국 기업으로서 미얀마 투자에 있어 초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인해 교역이 많아지는 경향을 활용하여 무역업이나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자원, 광산 및 봉제 분야에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 에너지 자원, 광산 같은 경우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고 개인의 소규모의 투자로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인 반면에 섬유, 봉제 분야에서는 초기 투자비용도 비교적 적고 사용 기술도 역시 범용 기술이므로 한국은 미얀마에 이미 많이 진출하여 초기 투자에 유리하다.

또한 기차 및 열차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은 과거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철도 분야에 투자하여 미얀마 당국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은 바 있었는데<sup>19)</sup> 미얀마 철도는 낙후된 철도 시설 등으로 그에 따른 철도 궤도, 차량 업그레이드 등이 필수적이나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가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철도 관련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은 민간참여가 제한되는 12개 분야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 12장 경제 특구의 건설과 관련된 도로, 철도, 항구, 교량과 같은 기반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하고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얀마 경제 발전에 있어서 통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신 관련 서

18) 정재원, KIEP, "미얀마의 경제. 산업 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0, pp.17-18.

19) 윤동진, "미얀마 대우그룹 성장과정", 경영교육연구, 1999년5월, 제3권 제2호, p.150.

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sup>20)</sup> 미얀마는 GDP 대비 통신 비중은 2010-11 기준으로 1.4%이며 이 때 중국은 5.7%, 인도 2.8% , 베트남 6.47% 등으로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 통신 분야의 수입 구조 살펴보면 1987년에 약 30만 달러뿐이었으며 2011년엔 3억 달러로 1000 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부서별 투자 실적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통신 분야에서 2007-2008 회계연도에 2.3% 이외에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통신 분야에 대한 부실한 투자 실적의 결과이다. 미얀마 ICT(International Communication Union)의 ICT Development Index(IDI)를 통해 미얀마의 ICT 발전 수준에 대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59개 중에서 119위를 차지하여 ICT 분야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 활용 기술 등 모든 세부분야에서 낮은 수준이다<sup>21)</sup>.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향후 5년 기간을 계획 기간으로 선정하여 이 기간 동안 전국으로 전화선 3천만 개를 공사할 계획이다.<sup>22)</sup> 이뿐만 아니라 1) 모바일 전화기 확장 공사 계획 2) IT 서비스업 투자 확대 3) e-government 계획 등으로 미얀마 통신 시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해 통신 분야에 기술력 및 노하우가 많은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여 조기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처음에는 수출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낮은 방법으로 출발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이 늘고, 자본 및 경영능력이 축적되면 높은 위험을 요하는 해외직접 투자가 가능해진다.<sup>23)</sup> 한국도 마찬가지로 1975년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1년 7,500 달러에 달한 현대건설의 성공적인 칸디담 공사에 이어 1985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철도차량 국제 입찰을 1,400만 달러에 수주하면서 미얀마 시장을 처음으로 공략하였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대 직접 투자 전략은 처음에 SKD 방식으로 철도 차량을 대우 중공업에서 제작하여 미얀마에 수출하여 현지 공작 창에서 조립하며 현지 조립 관련 기술 및 노하우(Know-how)를 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다만 대우 그룹은 1988년 처하게 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지속하면서 우호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투자 즉 미얀마 봉제 분야에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한국은 임금상승과 노사 분규로 인해 노동집약적 봉제업을 해외 투자 고려하는 시기였으며 허쉬(Hirsch) 에 의해 제시된 결정 모형  $FDI = (\text{미얀마에서의 생산비} + \text{현지 생산 활동 추가 비용}) < (\text{한국에서의 생산비} + \text{수출마케팅비용 등})$  을 적용해보면 상승된 임금으로 인해 본국 생산 비용이 그 당시 인건비가 월당 20-25 달러로 아주 저렴하였고 역사적으로 노조가 없

20) U Kyaw Soe, " National Workshop Communication sector ",2011, p.2.

21) 정재원, KIEP, "미얀마의 경제. 산업 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0, p.17-18.

22) U Kyaw Soe, *ibid*, p.42.

23) 전외술, " 글로벌 경영"대명도서출판사, 2009, p.288.

는 등 진출하기엔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또한 대우 그룹은 섬유업으로 성장한 기업이었기에 대우는 봉제업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대우는 그 당시 미얀마 외국인 투자의 약 80%가 합작 관계를 맺었으며 1991년 미얀마대우합작공사(Myanmar Daewoo Int'l Ltd)를 설립하였는데 당시의 투자 동기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와이셔츠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섬유, 봉제 산업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부존 요소 및 투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미얀마 정부 역시 섬유, 봉제 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은 비교적 적고 사용 기술 역시 범용기술이라는 특징으로 먼저 육성하였다.<sup>24)</sup> 미얀마 섬유, 봉제 산업의 경쟁력은 1) 저렴한 임금 2) 기존의 한국 봉제 공장들의 진출 경험 및 노하우 등 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날 한국의 대 미얀마 직접 투자 경제적 효과 즉 배경은 생산요소의 확보, 미얀마 내수 시장 확보, 국제 수지 개선 등이며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생산비가 절감되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매출의 증가에 이어 현지 기업의 중간재 및 서비스 분야의 수입 수요를 촉진 시켜 한국의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고 한다. 투자유치국인 미얀마에게는 이런 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적잖은 긍정적인 효과를 있는데 특히 기술이전, 교역 및 투자에 의해 일자리 창출과 그로인한 미얀마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 산업화 추진 과정에 필요한 기반 촉진과 그리고 조세 수입 증가가 그것이다.

미얀마로의 해외 직접 투자 전략은 크게 1) 단독 투자 2) 합작 투자 3) 주식 투자가 있는데 현재 미얀마 정부는 경제 발전 기반을 위한 기술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는바 개인, 회사 및 공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미얀마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어떤 투자 동기로 미얀마 진출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 효율성 증가의 동기나 미얀마 내수 시장을 확보 동기 등으로 진출 하게 될 때에 합작 투자는 항상 "적절한" 파트너의 선정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존의 합작선의 시장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합작선으로 부터의 기술 이전 요구, 기술과 노하우의 외부 유출 위험이 따른다. 다만 한국 기업으로서 자기 기업의 핵심 기술에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술 유출은 물론 기업의 실패임으로 100%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단독 투자가 필요로 하나 합작 투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독 투자 하는 경우는 어떤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지 세심한 사전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미얀마의 중국의 수력 발전소 등 전력 관련 사업,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인도의 심해 광구 신규 투자 및 기존 광구에 대한 추가적 투자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24) 정계원 외, "미얀마 주요 산업", KIEP-KOTRA, 2009, p.215.

여 인도, 태국 등 주변국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방문하는 등 투자에 대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IV. 결론

2010년 12월 실시된 총선에 이어 2011년 3월에 신정부가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경제특구법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하며 이는 외국 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라고 분석될 수 있다. 2011년 한 해에만 20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가 유입할 수 있었으며 경제특구법 내용상 1) 첨단 및 정보 통신 기술 이전 및 개발 2) 일자리 창출 3) 외국 자본 유입 4) 인프라 구축 5) 생산성 증가 6) 인력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나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가속화되어만 가는 내전으로 불안정한 정치 등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너무나 많다.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 분야는 전력, 석유 및 가스 분야 등 에너지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건설업 포함해 제조업 분야는 전력이나 가스 분야 비해 비중이 여전히 낮지만 앞으로 제조업 분야는 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미얀마는 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도로, 철도, 전력, 전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시스템과 더불어, 광고 매체, 유통시스템, 금융기관 등 사회간접시설이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시설과 서비스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여야 외국 기업들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sup>25)</sup> 경제 특수 지역으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 필수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전력, 도로, 교통, 통신 및 금융기관 그리고 숙련된 인력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최근 물류 인프라 구축, 은행, 열차, 정유 등의 민영화, 항만 업그레이드 등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미얀마에 투자 가능한 한국 기업에게는 미얀마의 사회적 인프라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음으로 우선적으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 및 통신 산업, 산업단지 개발 등 관련된 부동산 산업, 광산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즉 기존부터 진행되던 인프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봉제 산업 등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얀마는 경제 개혁 초기 단계이라 미얀마 국민들의 생계 즉 생활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아직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과거 비슷한 정치, 경제환경에 있던 주변 베트남의 경우 현재 미얀마 경제 수치보다 월등히 높으며 2010년 되어서 중저소득 국가(Lower-middle income

25) 홍선현, "국제 마케팅", 우용 출판사, 2008, p.82.

country)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얀마의 내수 시장 확보에 앞서 미얀마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환율 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미얀마 경제 개방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다만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미얀마 고용 구조를 살펴보면 미얀마 여전히 농업 중심의 취업 구조를 보이며<sup>26)</sup> 2010년 기준으로 UNDP가 주체되어 발표한 인력 개발 지수에 미얀마 0.451로 169개 국가 중에 132 순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 등 숙련된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는 경제 특수 지역 내 인력 개발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기업들은 미얀마 내수 시장 확보에 일기상조이며 정부 차원에서 사회기반 시설 즉 나라 건설에 필수적인 분야들과 기존의 갖춘 인프라와 추가적 투자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분야에 투자가 앞서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지 정부는 노동집약적 자원집약적인 품목을 많은 생산 요소를 투자하여 생산성을 증가에 이어 수출 증가로 외국인 자본 유치로 인해 나라 건설 등 산업화 과정에 필수적인 갖춰야 되는 사회간접시설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제 막 화두로 떠오르는 미얀마의 경제개혁 의지와 그 성과에 대해 고찰한 최신의 자료가 될 것이나 한편, 미얀마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므로 인해 향후 세부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26) 정계원, 전계서, 2010, p.5.

## 참고문헌

- 윤동진, 『미얀마 대우그룹의 성장과정』, 경영교육연구, 제3권 제2호, 1999
- 이동윤 외, “태국-미얀마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 미얀마의 아세안(ASEAN) 가입을 중심으로”, 2002
- 전외술, 『글로벌 경영』, 대명, 2009
- 정준영,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KIEP 대외 경제 연구원』, 2010.
- 정재원, 김종상, “미얀마의 주요 산업”,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 연구』, 2009
- 정재원, 권율, “미얀마 신헌법 채택과 향후 정국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No 16, 2008.
- 정재원, “미얀마의 경제. 산업 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0
- \_\_\_\_\_,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Asian Development Bank』, 2011
- Aung Kyaw, 『Financ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Myanmar』, 2008
- Toshihiro KUDO, Fumiharu MIENO,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Myanmar’s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n Open Economy”,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paper No.116, 2007
- Toshihiro KUDO, “Myanmar’s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Can China Support the Myanmar Economy?”,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Discussion Paper No.66, 2006
- Toshihiro KUDO, “Border Industry in Myanmar: Turning the Periphery into the Center of Growth”, Discussion Paper No. 122, 2007
- Thandar Khine, “Foreign Direct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Myanmar and ASEAN”,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Discussion Paper No.149, 2008
- U San Theing, 『A study on Myanmar’s fiscal performance』, 2011
- U Kyaw Soe, 『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sector』, 2011
- Masahiro Hori and Yu Ching Wong, 『Efficiency Costs of Myanmar’s Multiple Exchange Rate Regime』, 2008
- U Soe Thein, 『National Workshop on Enhancing Economic policy for futur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2011

<http://www.trademap.org/>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oreaexim.go.kr/>

<http://beta.adb.org/countries/myanmar/main>

<http://www.heritage.org/Index/download>

<http://www.csostat.gov.mm/sIndicators.asp> ( 미얀마 통계청 )

## ABSTRACT

## Myanmar' s Macroeconomic chang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vest of Korean Enterprises

Jung Sung-Hoon\* · Kwon O-Yoon\*\*

Myanmar had fallen behind other southeast asian nations since Burmese way to Socialism settled down. However, historically second election in Myanmar hold in 2011 and dramatic changes in areas such as Special Economic Zone announcement, the very huge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year of 2009, the infrastructure building projects, a permit of the right to strike for Labour Organization in Myanmar etc.

Particularly, Foreign investments and trade with neighbouring countries are actively growing and also with Korea. But investments of Korea in Myanmar relatively are not diversity, with limited sectors such as mining and sewing manufacturing.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s trying to make implications for strategies of entry and investments of Korea in Myanmar by using previous papers related to Myanmar economies, trade and foreign investments with updated statistical data.

The implications for Korea is that recently Myanmar economy is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 Although it can occur huge demand of railway, road, communications and constructions related to social infrastructures essentially needed for development of a country, these sectors relatively need huge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s, textile and sewing industry relatively need smaller investments in which investors can utilize low labour cost and a position for export to third countries. But those firms which set up for those purpose in Myanmar might have trouble creating domestic markets in future. Moreover, due to demand which occur in the early stage of growth in Myanmar, trade volume tend to increase and trading is also possible to invest but Myanmar still have lots of problems with infrastructure such as road and logistics and we need to make pre-survey for the costs and benefits of our products. Finally, Myanmar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and encourage some of industries such as export-oriented industry,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and labour-intensive industry . It can also means they will accumulate capital which can be sources for Myanmar economic growth.

\* Associate professor, Dept.of International Trade, Donggu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Dongguk University